



## 수화를 배워 봅시다

**꼬** 피는 춘삼월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때아닌 폭설로 오랫동안 움츠렸던 동식물들이 한껏 기지개를 펼 수 있는 단비가 내리고 있다.

이 비 그치면 우리의 국토가 연초록의 싱그러움과 울긋불긋한 아름다움을 발산하는 모습들을 생각하면 박하사탕을 먹었을 때의 느낌처럼 마음 한구석이 환해지는 듯하다.

일을 마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집으로 오면서 언제나 그랬듯이 앉는 것을 포기하고 지하철 출입구 쪽에 기대어 책을 꺼내고 있는데 누군가 내 팔을 잡았다. 중년의 여성이었는데 반가운 표정이다.

‘누굴까?’  
기억의 저편을 한없이 뒤지고 있을 무렵 갑자기 손으로 말을 했다.

“혹시, 수화 통역하시는 분 아닌가요?”

“네...”

“농아인 협회에서 일 하신 적 있죠?”

‘아...맞다’

언젠가 한 두 번은 본적이 있는 농아인이었다.

갑자기 내 팔을 잡더니 당신이 앉았던 자리에 나를 앉힌다.

그러면서 옆에 앉은 친구인 듯한 분에게 나를 소개시키느라 한참을 수화로 말씀을 주고 받았다.

처음으로 대화를 하는 사이지만 그동안 농아인사회의 변화와 앞으로의 바람들과 공통적으로 아는 사람들에 대한 안부를 묻느라 우리들의 대화는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다.

며칠 전에는 장애인관련 영화 말아톤을 보았다고 자랑도 하신다.

한국영화의 특성상 자막이 없을텐데... 어떻게 보셨냐고 했더니 한 이동통신사의 후원으로 자막이 들어간 상태에서 보셨다고 한다.

자신도 장애인이지만 주인공의 장애 극복기를 보면서 많이 울었다고 감동받았다고 했다.

그동안 농아인이 접할 수 있는 영화라곤 자막이 삽입된 외국영화에 한정되었었고 한국영화를 볼려면 개봉관에서 상영이 끝난 후에 자막을 삽입하는 작업을 통해서 접할 수 있었던 것이 웬일로 발빠르게 이루어졌

을까? 이유야 어쨌든 이런 현상들은 고무적인 일인지라 농아인들이 한국영화를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친구라는 분은 얼마전 한 구청에 방문해서 그곳에 상주하는 수화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보건소에서 진료 받은 사연을 얘기하면서 수화통역의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리고 뉴스 통역하느라 수고 많다고 내게도 고마움을 잊지 않으셨다.

수화통역은 농아인들의 권리라고 말하자 환한 웃음을 보이신다.

두 분의 농아인들은 50대 중반으로 가정을 갖고 계셨으며 젊은 시절부터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자녀들은 대학공부를 시켰다고 한다. 군대간 아들이 제대해서 취업을 하면 공장을 그만두고 쉬고 싶다고 했다.

비장애인들도 자녀양육과 함께 직장생활하기가 어려운데 장애를 안고 살아오신 그들의 노곤한 삶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짐작이 되었다.

또 한 분은 일이 힘들기는 하지만 주일이면 교회에 갔다가 근교의 주말농장에서 텃밭 일구는 것으로 재미를 찾는다고 했다. 나이가 더 들면 귀농도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다며 행복한 웃음을 지으셨다. 여름에 감자 한박스 보내겠다고 주소를 물어 보셨다. 말씀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대답했다.

농아인들은 이렇게 쉽게 친해진다. 내가 그들의 언어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쉽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그들을 볼 때 나는 수화통역사가 된 것에 자부심과 함께 농아복지의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아자!' 를 크게 외쳤다.

그러는 사이 지하철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느꼈다. 조그만 몸짓에도 무슨 일인가 눈과 귀가 쫓겨다니는 공간에서 우리 세 사람의 손으로의 대화는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평소에 농아인과 대화를 할 때는 말을 하면서 수화를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말과 함께 수화를 사용하

는 것은 '저는 비장애인입니다' 를 나타내는 것이어서 나 역시 입을 다물고 수화로만 대화를 하다보니 줄지에 농아인이 되어 장애 체험까지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비 장애인들의 반응들 즉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다.

"쫓 쫓 쫓 멀쩡하게 생겼는데 말을 못하다니..." 머리 희끗한 할머니께서 안쓰러운 시선으로 우릴 보고 계셨고 서서 얘기하고 있는 농아인 아주머니한테 자리를 양보하는 대학생도 있었다.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처음에는 낯설다가 다음에는 뭘 어떻게 도와 줄까 로의 변화를 보면서 비장애인 장애인으로 구분짓기 보다는 가까운 이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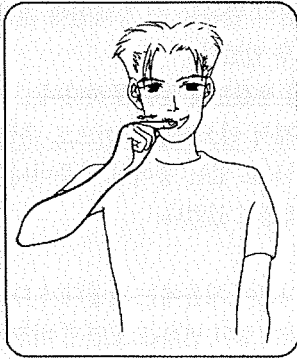
봄비가 자주 내리면 아낙네의 손이 커진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풍년을 맞는다는 뜻이란다.

단비와 함께 우리의 마음들이 따뜻한 걸 보니 장애인 복지도 한층 더 발전을 하리라는 기분 좋은 예감이 드는 하루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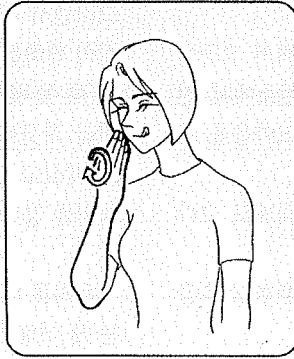
글 : 최 덕 신 \_ 수화통역사, 서울시립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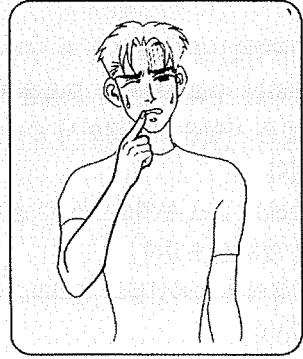
● 소금



● 달다(설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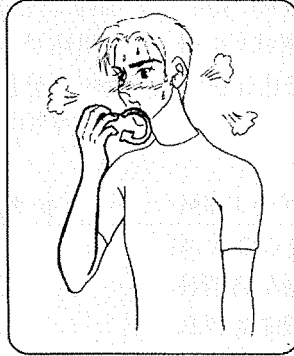
● 쓰다



● 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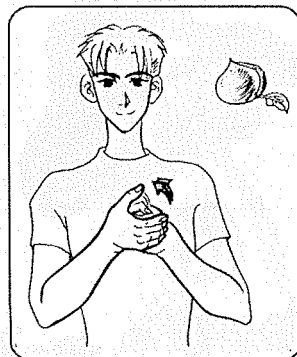
● 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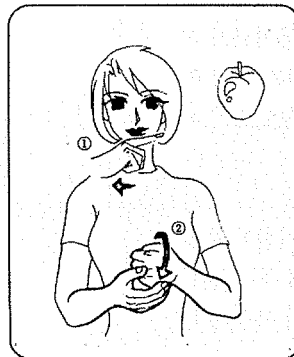
● 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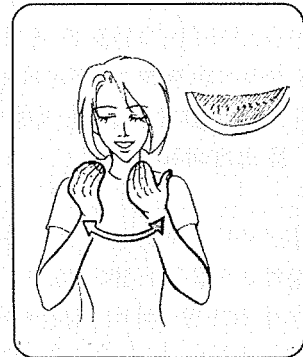
● 복숭아



● 사과



● 수박



자료출처: 수와뱅크 (조태순, 도서출판 수와샘)